

smart is sexy

Orbi.kr

지문을 잘 읽어야  
문제가 잘 풀린다



이윤범 지음

수능 기출 지문을 읽으며 배우는

# 비문학 공부법 핸드북



꾸미지 않아도 멋있고 예쁘지만 아직 그것을 모르는 10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고있는 20대와 30대,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부모님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1부 왜 비문학 읽기 능력이 필요한가? · 13**

**2부 비문학을 읽는 황금열쇠 · 25**

- 1장** 황금열쇠를 찾기 위한 준비 :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글을 읽을 것인가? · 27
- ① “문제풀이”만을 목적으로 글을 읽으면 안 되는 이유 · 27
  - ② 어떤 글을 읽어야 하는가? : 공인된 기출시험의 지문 · 28
  - ③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속독과 정독 · 29

- 2장** 황금열쇠를 찾기 위한 공식 : 읽기 능력은 어떤 공식으로 구성되는가? · 31
- ① 읽기 능력 공식 · 31
  - ② 단어 능력 · 32
  - ③ 추론 능력 · 33
  - ④ 구성 능력 · 35
  - ⑤ 읽기 능력 공식의 구성요소별 중요성 · 37

**3장** 첫 번째 황금열쇠 : 목적 · 39

- ① 글을 쓴다는 행위의 원인 · 39
- ② 글쓴이(출제자)의 입장 · 41
- ③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글 · 42
- ④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 · 44

**4장** 두 번째 황금열쇠 : 구조 · 45

- ① 구조 이해의 중요성 · 45
- ② 구조를 파악할 때의 주의점 · 46
- ③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 48

**5장** 세 번째 황금열쇠 : 주제 · 52

- ① 주제의 의미 · 52
- ② 설명하는 글의 주제 · 53
- ③ 설득하는 글의 주제 · 55
- ④ 주제를 찾는 연습 · 57

**6장**番外편 : 비문학 읽기 능력과 글을 쓰는 능력의 상관관계 · 61

- ① 읽기 능력과 글을 쓰는 능력의 연계성 · 61
- ② 비문학 글을 잘 쓰기 위한 연습 · 62

**3부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기 : 수능시험 비문학 기출 지문** · 65

**Ⅰ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는 방법** · 67

**1장 '21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72

- ① '21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6~21번 · 72
- ② '21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26~30번 · 84
- ③ '21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4~37번 · 95

**2장 '20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105

- ① '20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6~20번 · 105
- ② '20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26~29번 · 114
- ③ '20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7~42번 · 121

**3장 '19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131

- ① '19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6~20번 · 131
- ② '19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27~32번 · 140
- ③ '19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9~42번 · 149

**4장 '18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158

- ① '18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16~19번 · 158
- ② '18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27~32번 · 165
- ③ '18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38~42번 · 176

**5장** '17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185

- ① '17년도 수능 국어 흡수형 16~20번 • 185
- ② '17년도 수능 국어 흡수형 33~36번 • 195
- ③ '17년도 수능 국어 흡수형 37~42번 • 204

**4부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기 : 다양한 응용** • 215

**1장** 수능시험 문학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217

- ① '19년도 수능 국어 흡수형 33~35번 (시) • 217
- ② '20년도 수능 국어 흡수형 30~32번 (소설) • 228

**2장** 수능시험 영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238

- ① '20년도 수능 영어 흡수형 41~42번 • 238

**3장** 정부 발간 정책자료(보고서)에 적용하기 • 245

- ① 「2020 관광기업 지원 정책」(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45

**5부 부록 :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간략한 조언** • 261

1부

# 왜 비문학 읽기 능력이 필요한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 대부분이 마치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하는 행위로서 학습, 업무, 취미 등 많은 일의 기본이 된다. 특히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읽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배우는 많은 것들이 사전에 존재하는 정보를 “읽어서”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중요한 “읽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교 입시를 좌우하는 수능시험에는 국어영역이 있고, 행정고시 및 외교관을 선발하는 1차 시험(PSAT)에는 언어논리영역이 있으며, 법학적성시험(LEET)의 언어이해영역과 많은 기업의 인적성검사에 서도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가 읽어야 하는 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흔히 중고등학교 때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크게 문학과 비문학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글을 분류했다. 문학은 시, 소설, 희곡 등이고, 비문학은 설명문, 논설문, 연설문 등이라고 배웠다.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을 한 후에도 무언가를 읽는 과정을 통한 학습은 계속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접하는 글은 비문학에 속하는 글이 많다. 상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연구결과를 작성하거나,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듣고 읽고



쓰는 글은 대부분 비문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비문학을 읽는 능력”은 비단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회사원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행위를 따로 배우지 않는 것처럼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굳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문학을 읽고 이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특히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시험 언어영역의 경우 총 45문제 중 대략 20문제 전후가 “비문학을 읽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먼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책에서는 “문제 푸는 기술”을 설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를 푸는 기술은 각종 참고서나 학원,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얼마든지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 국어영역 강사 등 전문가가 수험생 입장이 되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지켜보면 매우 효율적이고 쉽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의 풀이법을 볼 때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싶다가도, 시험장에서는 절대 그들처럼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이다. 매우 상투적인 비유를 들자면, 이는 아주 능숙한 낚시꾼이 낚시하는 장면을 옆에서 자세히 살펴본 이후에 ‘낚시 초보인 나도 혼자 낚시하러 가서 그 기술을 흉내내봐야지’ 하는 격이다. 문제를 푸는 기술은 물론 중요하고,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더욱이 문제를 푸는 기술 또한 익혀야 한다. 그렇지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라’라는 오래된 격언처럼 숙련된 사람들의 고기 잡는 기술이 본인

의 기술이 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기에,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이 책에서는 고기를 잡는 방법에서 더욱 근원으로 돌아가 ‘고기를 키우는 방법’부터 알려주고자 한다. 문제를 푸는 기술만 능숙한 사람은 결국 변수에 휘둘리기 쉽다. 그날따라 매우 어려운 지문 혹은 길이가 긴 지문이 출제되거나, 당일의 시간 배분을 잘못하여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이와 같은 기술만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렵다. 그러나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낚시터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날따라 고기가 없거나 악천후 때문에 낚시를 할 수 없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은 낚시꾼이라도 도리가 없겠지만, 이런 때를 대비하여 차분히 고기를 키우는 방법을 익혀온 사람이라면 걱정이 없다. 키운 고기는 도망가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렇듯 이 책의 목적은 독자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수능시험의 기출지문도 각각 한편의 완결된 글로서 마주할 것이며, 이를 위해 책의 크기도 시험지 크기가 아닌 일반적인 책의 크기를 선택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수험서라기보다는(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소설책이나 자기개발서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 책을 읽은 후 독자들이 새로운 비문학 글을 접할 때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수능시험 등에 문제로 출제된 지문은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지문을 효과적으로 잘 읽기만 해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읽고 상세하게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인터넷으로 배경지식까지 검

색할 수 있다면 글을 꼼꼼히 분석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예를 들어 시험장에서 처음 본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길지 않은 제한 시간내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사실 이 책에 서술된 상당수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이를 실천하지 않았거나 실제 글을 읽는 데에 적용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먼저 비문학을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황금열쇠라고 할 수 있는 글의 “목적”, “구조”, “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대부분의 비문학 글은 목적과 구조, 그리고 주제를 파악하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 가지 황금열쇠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황금열쇠를 실제 비문학 글에 적용하여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수능 시험에 출제된 비문학 지문을 중심으로, 심지어는 비문학의 이해를 위한 황금열쇠가 문학 지문이나 외국어 지문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책은 문제 푸는 기술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비문학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어 독자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문학을 잘 읽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문제를 푸는 기술은 매우 쉽게 터득하게 될 것이다. 수능 시험 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 시험 및 법학적성시험을 비롯한 공무원 시험, 기업 인적성검사 등 취업준비 분야 모두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자신한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비문학 지문 중 가장 잘 쓴 글,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글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반복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연습을 위한 좋은 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존에 수능시험 등 공인된 시험에 출제되었던 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중 어렵고 생소한 글일수록 오히려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글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비문학을 읽는 황금열쇠인 “목적”, “구조”,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비판적인 눈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의 틀을 활용하여 글을 분석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책에서 설명한 과정에 따라 “비문학을 읽는 능력”을 키운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가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 이해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읽는 능력이 쓰는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가수의 노래를 계속 따라부르는 법을 연습하다보면 그 속에서 노래를 잘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처럼, 잘 쓰여진 글을 지속적으로 읽고 분석하는 연습을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글을 잘 읽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 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짧은 글을 읽는 것에 익숙하고 주로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직관적이고 단편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조금만 긴 글을 읽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짐은 물론이고,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방식

으로 사고하며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비문학을 읽는 능력”이 야말로 다른 배움의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기술을 배울 때조차도 초반에는 설명을 읽으면서 원리를 익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어나 언어 과목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학습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시기부터 교육 및 학습방법에 관심이 많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울 수 없을지를 늘 고민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많은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거나 조언해주었다. 시중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설명하는 강의나 책은 많지만, “어떻게 읽는지”를 설명하는 강의나 책은 많지 않다. 굳이 비싼 학원 강의를 듣거나 족집게 강사를 만나지 않아도 잘 읽는 방법을 알고만 있다면 국어영역은 물론 다른 영역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과 후배들이 감사하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피드백을 주어 이와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었을 법한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빠른 시간안에 글을 파악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의 중요성은 잊고 있었다. 야구선수가 안타를 치는 것에만 몰두

하다가 기본적인 체력과 근력 훈련을 소홀히 한 채 타격기술만을 연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보다 중요한 물음은 바로 “어떻게 읽느냐?”이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길이면 서 순발력을 기르고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글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어려운 길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근본적인 체력을 키우는 작업이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매우 많은 책을 읽어서 스스로 잘 읽는 능력을 깨우친 사람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회가 적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분명히 방법은 있다. 짧은 분량의 글을 몇 편만 읽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분석하며 반복적으로 읽는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점차 읽기 능력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강사나 다른 뛰어난 친구들이 글을 읽고 문제 푸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없다. 독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만의 읽기 능력을 키우기를 강력히 권한다.



## WARNING

이 책은 수능시험 비문학 기출 지문을 비롯하여, 수능 시험 문학 기출 지문은 물론 영어 지문, 정부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읽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직접적으로 “시험점수”를 높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시험점수란 읽기 능력이 향상될 경우 뒤따라오는 결과라고 보기에 이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책에 기술된 읽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법은 보다 근본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전반적인 독해 능력을 향상 시키기에는 적합하지만, 시험점수를 목표로 하는 독자들이라면 무엇인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라면 이 책을 여러 번 읽어 익숙해진 후에 시중에 다수 판매되는 수험용 문제집 등을 풀어보기를 권한다. 당장 점수를 높이려는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읽기 능력의 기초를 다진다면, 튼튼한 기본체력을 바탕으로 이를 문제풀이에도 마음껏 활용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 책은 “핸드북(handbook)”이라는 명칭처럼 독자 여러분들이 손에 자주 지니고, 이동할 때나 잠깐의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경우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급한 마음으로 욕심을 앞세우기 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친근하게 이 책을 가까이 할 때 책은 많은 것을 이야기 해 줄 것이다. 또한 이 책이 일반적인 수험서처럼 한 번 읽고 문제를 맞춘 후 잊혀지는 일회용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되뇌이게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확인하게 해 주는, 독자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동반자이자 친구로서 자리매김 했으면 한다.



2부

# 비문학을 읽는 황금열쇠





## 2장

# 황금열쇠를 찾기 위한 공식

- 읽기 능력은 어떤 공식으로 구성되는가?

### ① 읽기 능력 공식

잘 읽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마치 축구선수의 능력을 체력, 테크닉, 지능, 순발력, 지구력으로 이루어진 5각형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읽기 능력 역시 세부요소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각각의 요소는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후천적인 연습과 노력을 통해 배양할 수 있는 능력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읽기 능력이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text{읽기 능력} = \text{단어 능력} + \text{추론 능력} + \text{구성 능력}$$

즉, 읽기 능력은 위 세 가지 능력의 합이며, 각각의 능력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각각의 능력을 어느 시기에 길러야 하는지, 이를 배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 ② 단어 능력

첫 번째로 단어 능력은 말 그대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말하며, 글을 읽을 때 이 글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사전에 얼마나 가진 채로 읽느냐와 연결된다.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그리고 회사원의 읽기 능력을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평균적으로 후자로 갈수록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에 비례하여 다양한 지식이 축적되어 이와 같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능시험에 출제된 과학 관련 지문의 단어들이 초등학생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 있어도,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으로 과학을 비롯한 다른 배경지식이 점점 축적되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과 담을 쌓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릴 때보다 많은 과학 관련 단어를 알게 되어 상대적으로 친숙하게 느낄 것이다.

시험장에 가서 출제된 지문을 마주할 때 지문이 어려운지 쉬운지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또한 단어 능력이다. 지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일단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면 읽는 동안에도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이지만 본인은 관심이 많아 예전부터 해당 분야를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했다면 지문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아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지문을 만날 경우 추가적으로 “자신감”이라는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지만 본인이 잘 아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지문을 더욱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착각하여 성의 있게 읽지 않거나, 글쓴이가 처음 의도한 주제와 달리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근거하여 지문의 주제를 자신의 마음대로 선불리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단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전반적인 읽기 능력을 고양시키기에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큰 성과를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 ③ 추론 능력

두 번째로 추론 능력은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내용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추리소설은 주어진 단서를 통해 범인을 찾아내는 내용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도 이미 읽은 내용 속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에 나올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을 찾아내어야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이해할 수 있다.

추론 능력이 좋은 사람의 특징으로는 관찰력이 좋은 것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능력이 좋다는 것, 그리고 순발력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읽은 글의 내용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놓칠 수 있는 내용을 예리하게 찾아내고, 글쓴이의 입장이 되어 과연 글쓴이가 이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하게 될지를 미리 예상하며, 재빠르게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고한다.

추론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많은 글을 읽어보는 것이다. 많은 표본을 접할수록 글쓴이가 어떤 방향으로 글을 서술할지, 이 글을 통해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지 점차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마치 많은 사건을 해결해 본 탐정일수록 새로운 사건을 마주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많은 글을 읽을 여건이 안 된다면 글을 읽을 때 최대한 글에 몰입하여 글의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글쓴이에게는 긴 글이든 짧은 글이든 이 글을 쓴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입장에 몰입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글로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즉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글을 읽는 내내 고민하며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은 물론 연습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배양되지만, 단어 능력에 비해서는 연습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상승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 편의 글을 읽더라도 이에 몰입하여 글쓴이의 입장을 헤아리며 읽으려는 태도이다. 한 편의 글을 여러 번 읽어보며 다양하게 추론해 보는 것 또한 좋은 연습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결국 추론하는 능력은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능력인데, 이는 글쓴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썼으며 어떤 주제를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할 때 배양할 수 있는 능력

이다. 글은 전반적으로 글쓰기가 글을 쓴 목적에 부합하여 전개될 것이며, 결국 주제라는 목표를 향해 수렴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 ④ 구성 능력

세 번째로 구성 능력은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글의 각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문단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에 대하여 글쓰이는 상당한 고민을 통해 현재의 구조를 결정했을 것이다. 즉, 글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글쓰기가 글을 쓰며 머릿속에 그려놓았던 설계도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글은 단어로 시작하여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문단이 된다. 수능시험에 출제되는 국어영역의 비문학 지문을 예로 들어 보자면, 한 편의 글은 대체적으로 4~6개 정도(최근에는 5개의 문단인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8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난이도 높은 지문도 출제된 적이 있다)의 문단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문단들은 글쓰이로부터 자신만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문단들 간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글쓰이가 이 글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적절히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문단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단도 있다. 다른 문단을 도와주기 위한 역할의 문단도 있으며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문단도 있다. 따라서 글을 구성하는 문단들 간의 구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각 문단의 역할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며, 문단들의

역할 구분을 통해 전체 글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문단을 중심으로 각 문단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글을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입체적인 글 읽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치 평탄한 지형위에 산이 솟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글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똑같이 평평하게 보이지 않고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도드라져 보인다는 뜻으로, 결국 글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글을 읽는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구성 능력이 좋은 사람은 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여 정리할 수 있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요약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소화하여 비판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성능력이다. 글의 구성을 파악하면서 글쓴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내가 글을 썼다면 이렇게 쓰지 않고 저렇게 썼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모든 비판적 사고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구성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비판적인 사고를 할 때 구성능력을 기를 수 있으므로, 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글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보면서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할 때 구성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글을 얇게 읽는 것보다는 한 편의 글을 반복적으로 읽더라도 깊게 읽고 분석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 ⑤ 읽기 능력 공식의 구성요소별 중요성

지금까지 설명한 읽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인 단어 능력, 추론 능력, 구성 능력은 모두 중요한 능력이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읽기능력을 신장시킬 수 없으며, 세 가지의 능력이 골고루 배양될수록 글을 읽는 능력이 쑥쑥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능력간에 굳이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단어 능력-추론 능력-구성 능력의 순서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어 능력은 각각의 단어 및 이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본인이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비교적 가부가 명확한 문제인 것이다. 추론 능력은 뒤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것이고, 결국 글쓴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주제를 이야기 하고자 이 글을 썼는지 짐작하는 능력이다. 이는 기존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구성 능력은 글의 전반을 구성하는 각 문단을 비롯하여 각 구성요소들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글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글을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당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세 가지 요소 모두 글을 잘 읽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는 이들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 읽기 능력 공식의 구성요소 ]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읽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세 가지 황금열쇠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3부

#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기

- 수능시험 비문학  
기출 지문



었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3번 문단을 제외하고 1번 문단과 2번 문단의 주요 내용만으로 주제를 표현한 것이다. 주제는 글의 핵심을 간추려 응축하는 과정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더욱 중요한 문단의 내용을 담기 위해 일부 보조적인 문단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3번 문단을 포함한다면 “18세기 후반 이후의 청은 경제 발전에 이은 인구 증가로 반란의 기반이 조성되고 부정부패가 심화됨에 따라 통치자들은 불안을 느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문의 제목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18세기 후반 이후 청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 청의 경제 발전과 위기의 징후”라고 한다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담은 제목이며, 이 글의 주제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21년도 수능 국어 홀수형 26~30번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

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㉔물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㉔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 목적

이 글에서는 “채권”, “채무” 등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민법상의 개념들을 다룬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개념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주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설명을 통해 독자들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글쓴이가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이 글에서 등장하는 비교적 생소한 법적 용어들 가운데에서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1번 문단에 등장하는 “채권”, “채무”, “급부”는 글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지만, 그 자체가 주요한 설명 대상이라기보다는 다른 대상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2번 문단에서는 “계약”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특히 “계약”의 한 종류로 “예약”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글쓴이는 바로 이 “예약”과 관련된 내용을 3번 문단, 4번 문단, 5번 문단에서도 연이어 서술하고 있는데, 따라서 “예약”이 이 글의 주요 설명대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의 주요 설명대상이 “예약”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비단 2번 문단 이후 “예약”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첫째로 이 글의 3번 문단에서는 “예약”의 유형에 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이 글에서 3번 문단을 통째로 할애하여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는 분명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2

번 문단의 뒷부분에는 “예약”의 개념을 기차의 승차권 구입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예약”과는 다른 개념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법적인 예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글쓴이가 어떠한 개념에 관해 독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경험 혹은 지식이나 선입견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개념은 글쓴이가 글 전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주요한 설명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독자들이 과거에 잘못 이해했던 내용을 바로잡거나 기존 개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예약”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약”은 “계약”의 일종으로 적시되어 있다. “계약”은 “채권” 및 “채무”를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모두 민법과 관련이 있는 개념들이다. 이때 만약 최근의 기출 지문을 읽어본 독자들이라면 “계약”, “채권”, “채무”에 관해 설명한 '19년도 수능시험 국어영역 기출 지문(홀수형 16~20번)이 떠오를 것이다. 이처럼 비문학 지문의 출제범위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포괄하기는 하지만, “계약”, “채권”, “채무”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으면서도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내용의 경우에는 이미 출제되었음에도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개념이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면, 이와 같은 차이를 사례 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글쓴이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출제된 지문의 내용과 완벽히 동일한 지문이 다시 출제되지는 않겠으나, 이와 유사한 내용 혹은 이와 연관된 내용은 향후

에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출 지문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인데, 이미 출제된 지문 속의 내용은 다시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기출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 혹은 이와 연계되어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현실사회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과거의 역사에 존재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시험장에서 눈앞에 맞닥뜨릴 지문에 대한 이해 역시 과거 기출 지문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기출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익숙해질수록 새롭게 만나는 지문에 대해서도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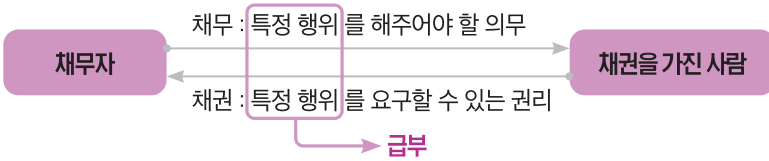
이 글은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이 “예약”에 관해 설명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우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예약”의 개념에 관해 설명하며, 1번 문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약”의 유형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3번 문단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뒷부분인 4번 문단과 5번 문단은 앞부분의 “예약”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만약 이와 같은 “예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서술한다.

앞부분에서는 “예약”의 개념을 설명해야 하므로 1번 문단에서는 먼저 이를 위한 사전단계로 “채권”, “채무”, “급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 개념은 이 글의 핵심적인 설명대상은 아니지만 “예약”의 개념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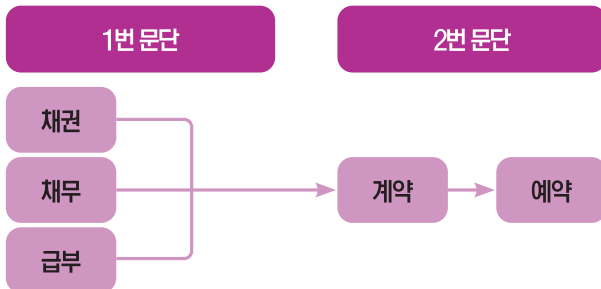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

[ “채권”, “채무”, “급부”의 개념 설명 ]



2번 문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예약”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예약”은 “계약”의 한 종류이므로 “계약”을 먼저 설명한 이후에 “예약”에 관해 설명한다.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며, “예약”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1번 문단에서 “계약”과 “예약”을 설명하기 위한 기반으로 먼저 “채권”, “채무”, “급부”를 설명한 후 2번 문단에서 “계약”과 이의 한 종류인 “예약”에 관해 서술한다.

[ 1번 문단과 2번 문단에서의 개념 설명 ]



3번 문단에서는 2번 문단에서 개념을 설명한 “예약”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사례를 활용한다. 법적인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종 이와 같이 사례가 활용되는데, 이는 법과 관련된 개념들이 비록 생소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접 마주하게 되는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제 현실에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때 독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통해 “예약”의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며, 두 번째 유형은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두 가지 유형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때에는 두 가지 유형이 대비되는 점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차이점에 집중할 때 머릿속에 두 유형을 분리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 지문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도 두 유형을 구별하는 것과 연계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약”의 두 가지 유형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계약 이전의 예약계약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예약계약을 실행하여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에 반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된다.

[ “예약”의 두 가지 유형에 따른 사례 적용 ]

	예약계약실행	본계약실행
기본구조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	본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 발생
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급식 업체 : 본계약 체결을 요청할 권리 회 사 : 이에 응할 의무	급식 업체 : 급식 제공 회 사 : 대금 납부
② 예약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본계약을 성립 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 성립	예약한 사람 : 식사비 납부 식 당 : 식사 제공

4번 문단과 5번 문단은 1번 문단에서 3번 문단까지 설명했던 “예약”의 개념에 더해 추가로 “예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설명한다. 앞부분을 읽으며 “예약”을 충분히 이해한 독자들이라면 이와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으며, 글쓴이는 이에 관해서도 설명함으로써 “예약”에 관해 더욱 풍부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4번 문단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채무의 내용이 바뀌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채무가 새로 발생함을 설명한다. 5번 문단에서는 새로운 경우로서 예약 상대방이 아닌 타인이 예약상 권리의 실현을 방해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이 글은 이처럼 다른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례를 통해 “예약”의 개념을 설명하는 앞부분과 “예약”과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방법을 서술하는 뒷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앞부분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뒷부분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1번 문단에서 3번 문단에 걸친 내용이 더욱 중요하며, 4번 문단에서 5번 문단에 걸친 내용은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주제

설명하는 글의 주제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과연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명백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은 “예약”이다. 다만 글쓴이는 기차 승차권의 예시에서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약이라는 단어가 아닌 “법적인 예약”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를 찾을 때는 기존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예약의 개념은 잠시 잊고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법적인 예약”에 집중해야 한다. 주제는 이처럼 글쓴이의 입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독자 여러분들의 기존 지식이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자칫 글쓴이의 의도와 달리 주제를 자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글쓴이가 설명하고자 하는 “예약”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미 이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채권”, “채무”, “급부”를 설명한 후에 이를 통해 “계약”을 설명하고, 이어서 “계약”의 일종으로 “예약”이 등장한다. “계약”이 포괄하는 범위는 분명 상당히 넓은 텐데 왜 하필이면 그중 “예약”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일까? 즉, “예약”이 가진 어떠한 특성이 “계약”의 한 종류로서 “예약”을 특별하게 만든 나머지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마음먹게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2번 문단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아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가 아닌 미래에 필요할 것을 대비하여 “계약”의 한 형태로서 “예약”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약”은 “미래의 계약”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계약”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예약”에 관해 설명하는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예약”의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곧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약은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약”의 개념을 잘 설명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예약”이 “계약”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추가하고, 다른 설명내용을 조금 축약한다면 “예약은 계약의 일종으로 미래에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이 글에서는 “예약”의 두 가지 유형과 “예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서술하고 있지만, 이는 “예약”의 개념에 더해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글쓴이는 독자들에게 먼저 “예약”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수적으로 “예약”의 유형이나 이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글의 주제를 더욱 함축하여 제목을 짓는다고 하면 “예약의

개념”, “법적인 의미의 예약”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의문형 제목을 만든다고 하면 “예약이란 무엇인가?”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글의 제목을 읽은 독자가 이 글에서 “예약”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제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 ③ '21년도 수능 국어 출수형 34~37번

최근의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짓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

4부

황금열쇠를  
적용하여 읽기  
- 다양한 응용





## 2장

# 수능시험 영어영역 기출 지문에 적용하기

### ① '20년도 수능 영어 홀수형 41~42번

For quite some time, science educators believed that “hands-on” activities were the answer to children’s understanding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science-related activities. Many teachers believed that students merely engaging in activities and (a)manipulating objects would organize the information to be gained and the knowledge to be understood into concept comprehension. Educators began to notice that the pendulum\* had swung too far to the “hands-on” component of inquiry as they realized that the knowledge was not (b)inherent in the materials themselves, but in the thought and metacognition\* about what students had done in the activity. We now know that “hands-on” is a dangerous phrase when speaking about



learning science. The (c)missing ingredient is the “minds-on” part of the instructional experience. (d)Uncertainty about the knowledge intended in any activity comes from each student’s re-creation of concepts — and discussing, thinking, arguing, listening, and evaluating one’s own preconceptions after the activities, under the leadership of a thoughtful teacher, can bring this about. After all, a food fight is a hands-on activity, but about all you would learn was something about the aerodynamics\* of flying mashed potatoes! Our view of what students need to build their knowledge and theories about the natural world (e)extends far beyond a “hands-on activity.” While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use and interact with materials in science class, the learning comes from the sense-making of students’ “hands-on” experiences.

\* pendulum : 추(錘)

\* metacognition : 초(超)인지

\* aerodynamics : 공기 역학

## 목적

이 글은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문학에 속하는 글인지 비문학

에 속하는 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하나하나 완벽히 한글로 번역하기 전에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문학 글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science”, “educators”, “knowledge”, “theories” 등의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지식이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글에는 등장 인물이나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등장인물과 그들이 벌이는 사건을 통해서 전개되는 소설이나 희곡 등 문학에 속하는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이 비문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면 글쓴이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범위를 좁혀볼 수 있다. 글을 시작하며 글쓴이는 ‘오랜 기간동안 science educators가 어떤 사실을 믿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이론 혹은 학설의 소개로 글을 시작하는 경우, 이후 내용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도 기존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 이론의 한계와 관련하여 “dangerous”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응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글은 기존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이를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형태의 설명하는 목적을 가진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이 기존의 이론과 새로운 이론을 설명하여 독자들을 이해 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글쓴이가 주로 설명하고자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고찰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 이 글의 서두에 등장하면서 따옴표로 묶인 “hands-on”(행동 중심)이 기존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글쓴이가 중시하는

새로운 개념은 역시 따옴표로 묶인 “minds-on”(사고 중심)이다. 이 두 가지는 대비되는 관점으로, 글쓴이는 기존의 “행동 중심”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보다는 “사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방향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이 글의 주요목적은 “hands-on”과 “minds-on”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지만, 글쓴이는 기존의 “hands-on”을 중시하는 관점을 탈피하여 이제는 “minds-on”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글은 위의 두가지 이론에 관하여 설명하는 목적을 가짐과 더불어 “minds-on”을 중시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의견을 피력하는 목적도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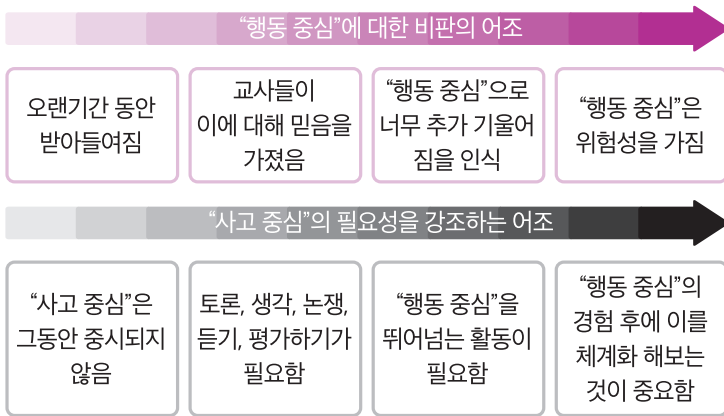
## 구조

이 글은 짧은 분량의 한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론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면서, 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글의 서두에서 기존 “행동 중심”에 관하여 소개한 후에 점차 이에 대해 비판적인 어조를 강화하며, 결국 이와 같은 이론이 위험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고 중심”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의 구조는 글쓴이의 어조가 변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면서 그 절정에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이론을 중시해야 함을 암

시하고 있다.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기 직전인데, “Educators began to notice”로 시작하여 ““hands-on” is a dangerous phrase”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글쓴이의 비판적인 어조가 가장 강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 “행동 중심”과 “사고 중심”에 대한 어조 변화 ]



이처럼 한 문단으로 이루어진 짧은 글 안에서도 글쓴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행동 중심”과 “사고 중심”을 각각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에 더하여 새로운 이론인 “사고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기존 이론인 “행동 중심”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더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등장시킨 후에 이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무작정 기존 이론이 잘못됐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 “사고 중심”이 더 중요한지에 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단순히 행동을 실행해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배우는 사람 스스로가 내재화·개념화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설명하는 글 또는 설득하는 글에서 이처럼 기존의 이론 혹은 타인의 주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을 진행한 후 새로운 이론 혹은 글쓴이의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글의 구조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이론 혹은 타인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이 한계를 갖는지 명확히 서술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이론 혹은 글쓴이의 주장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이론이나 주장의 한계가 새로운 대안의 배경이 되는 것이며, 이를 연결고리로 하여 글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 주제

이 글은 대비되는 두 가지의 이론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이 두 가지 이론에만 집중하여 간단하게 주제를 나타낸다면 “행동 중심 이론과 사고 중심 이론”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글쓴이의 의도를 담은 주제를 도출하고 싶다면 “행동 중심 이론에 대한 비판과 사고 중심 이론의 중요성”이라고 표현하여 각각의 이론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주제속에 표현할 수도 있다.

좀 더 완결된 형태의 주제로 나타내고 싶다면 이 글에서 논의되는 “행

동 중심”과 “사고 중심”이라는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 행동 중심과 사고 중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행동 중심 또는 사고 중심 중 어떤 이론이 맞다고 하는 것인지 고찰해 본다. 이 글은 “science educators”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여 “행동 중심”과 “사고 중심”이라는 두 가지 이론이 바로 과학 학습과 연계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다면 “과학 학습에 있어서 행동 중심 이론에 대한 비판과 사고 중심 이론의 중요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실 주제를 나타낼 때에 꼭 두 가지 이론을 모두 포함할 필요는 없다. 글쓴이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분명 “사고 중심” 이론이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여 단순하게 주제를 나타내도 무방하다. “과학 학습에 있어서 사고 중심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주제를 표현한다면 글쓴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